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5. 6. 9. 배포 시부터 보도** |
| **사진 설명** | **LS전선 직원이 구미 공장에서 초고압 직류(HVDC)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있다** |
| **문의** | **강철 팀장(010-9447-7079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ckan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전선, 세계 최대 용량 HVDC 케이블 상용화…**  **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**  **■ 세계 최초 525kV, 90℃급 상용화…송전 용량 최대 50% 증대**  **■ 9월부터 ‘동해안-수도권’ 1단계 공급, 2단계도 공급 추진**  **■ LS마린솔루션과 ‘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’ 공동 참여 계획** 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(HVDC)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,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‘동해안-수도권’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.  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,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℃에서 90℃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%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. 오는 9월 ‘동해안-수도권’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. 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,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전력 업계는 이를 “기술 한계를 넘어선 이정표”로 평가하고 있다.  ‘동해안-수도권’ 송전망 프로젝트는 동해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. 1단계는 동해안-신가평 변환소 구간이며,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2단계도 추진 중이다.  HVDC는 기존 교류(HVAC)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, 최대 3배 많은 전력을 장거리로 전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. 글로벌 시장은 2018년 1조 8,000억 원에서 2030년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.  LS전선은 유럽(1950년대)과 일본(1990년대)보다 늦은 2008년 HVDC 케이블 개발에 착수했지만, 불과 10여 년 만에 선도 기업으로 도약했다. 현재 이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전 세계에 6곳뿐이며,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다. 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(CTO)은 “HVDC 시장의 경쟁력은 상용화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”며, “LS마린솔루션과 함께 ‘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’, ‘동해안-수도권’ 2단계, 독일 테네트 프로젝트 2단계 등 국내외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 | |